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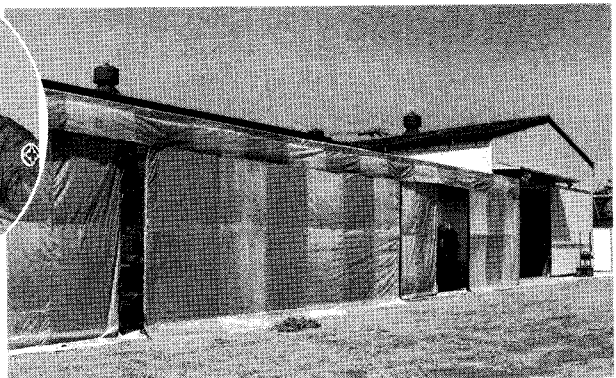


‘박스’란 개념보다 ‘상품포장’으로

경제 불럭화에 주력할 터

 대우포장기업



▶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대우포장기업 (원안은 김록겸 사장)

현실적으로 다품종·다빈도·소량생산이 유통시장을 점하고 있고 다양화와 전문화가 국내 포장산업을 이끌고 있다.

결국 포장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포장전문업체의 신제품 개발과 축적된 노하우를 필요로 하게 됐으며 이러한 국내 실정에 맞물려 골판지포장업체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지고 있다.

제2의 기능과 특성을

어느 기업이든 설립된 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 점유를 위해 노력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뒤로 한채 먼저 세계 시장에 뛰어 들어 자사 생산 제품인 고품질의 골판지상자의 기능과 특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에서 10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대우포장기업이 그런 예이다.

지난 96년 3월 양평동에서 이전해 직원 12명(외국인 근로자 1명 포함)과 함께 대우포장공업사에서 ‘대우포장기업’으로 출발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성장을 계속하여 94년에 1억 5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안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자신의 한계까지 노력한다’는 투지로 대우포장기업을 이끄는 김록겸 사장은 최근 일하는 재미에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10여년간 골판지분야에서 근무해 온 경력에서 베풀어오는 감각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김사장은 “저희 대우포장기업의 장점이라면 품질도 중요

하지만 사용하는 원단의 질이 최상인 제품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객이 만족할만한 제품생산이 가능합니다”라는 자신을 보이며 올해의 목표를 지난해 떨어진 매출액을 끌어 올리는데 두고 현장의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의 전기를 달성한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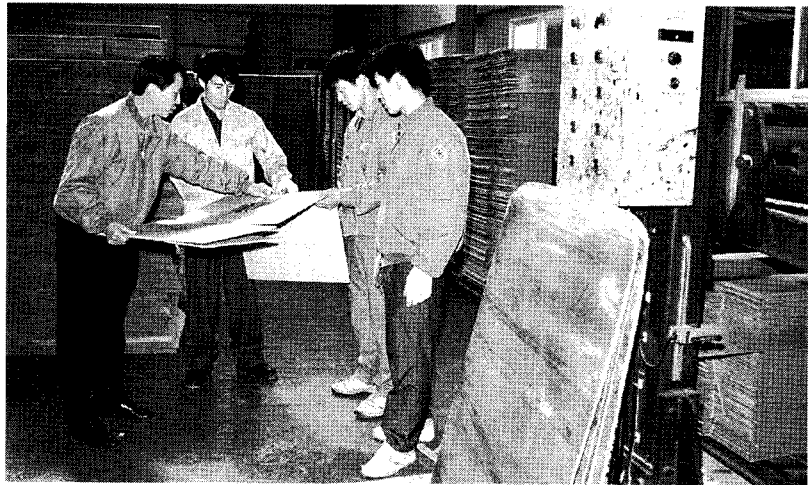
누구나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어려움을 한번씩 당하는데 대우포장기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실패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김사장 역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지금은 당당해 보였다.

몇년 전에 2억원 정도 부도를 맞아 운영이 어려웠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골판지상자에 대한 애착과 포장산업에의 자긍심으로 다시 딛고 일어섰다. 김 사장은 대우포장기업이 어느 정도 안정된 운영이 가능한 것은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피력했다. 지금까지도 4시간 이상의 취침을 거부한다는 김 사장의 실천하는 생활 이면에는 대우포장기업이 작지만 크게 일어나리라는 확신이 일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

“하나의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근간을 이루는 인적 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기술축적이 이루어진 기능인력이 필요하지요”라고 대우포장기업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기계에 기름칠하며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그는 대우포장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들을 움직이고 있다.

현재 프린터슬리터(130/min), 인쇄기(60/min), 자동철, 수동철, 톱슨(특전 : 28/min, 국전 : 32/min), 재단



▲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제품이 됐는지를 직원들과 검토하고 있다.

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우포장기업은 일본의 반다이, 미국, 유럽 등지에 생산량의 60%를 수출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제 상품경쟁의 흐름은 물동량을 얼마만큼 컨테이너에 적재하느냐가 아니라 High Quality와 그에 대한 다양한 수요”라며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노하우를 갖고 수요자측에 밀착해 고객만족을 향해 끊임없이 연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류비 13%

작년 매출액 대비 13%의 물류비가 소요된 대우포장기업은 생산량 중 김포관내에서 소화되는 것이 40%정도인데 관외로 나가는 것에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며 물류비를 줄이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관내의 영업에 주력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한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회사 개인적 의지로는 도저히 물류비용을 줄일 수 없습니다. 특히 영세업체인 경우는 더 그렇구요. 단지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과 장기적인 시행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말한 김 사장은 정부의 미비한 정책, 판지회사들의 확장사업, 동종업체간의 과당경쟁 등을 지적하며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고 털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다는 한 가지 장점으로 더욱 창의적으로 발돋움해야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김 사장은 “세계화의 흐름에 국내 시장도 발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한쪽에 치우치는 산업형태는 그 나라 산업을 도태시키는 요인이거든요. 하여 나름대로 불려와 경제를 강구하고 있는데 글썄요……”라고 말을 단았다.

‘감동을 주는 인생살이’를 지론으로 삼고 있고 ‘고객들한테는 마음부터 오가야’라는 경영지침으로 생산현장을 오가는 김록겸 사장과 개미정신으로 라인에 붙어 있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대우포장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K]

변준섭 기자